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7/21 월요일

아침의 누림행 13:32-33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행 3:13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7:5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눅 24:26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고,

요일 3:1

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하나의 출생이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롬 8:29).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요 1:18, 3:16). 그러나 육체가 되신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행 13:33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주님의 신분에는 두 본성, 곧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이 두 본성은 로마서 1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 있는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두 칭호에 나타나 있다. 이 절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본성에 따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곧 역사 속의 한 사람의 자손이시다(마 1:1, 22:42). 신성한 본성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표현을 의미한다(요 5:19, 14:7-9, 히 1:3).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신다(요 1:18). ...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심하신 아들께서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1:1, 계 19:13, 히 1:2).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감추어져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로써,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 곧 하나님-사람이시다.

두 본성을 가진 놀라운 신분을 지닌 이 비밀스러운 인격, 곧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다. ... 하나님-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에 관해 말하는 로마서 1 장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관해 말하는 16 장까지, 이 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완전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10:15)이다. ... 로마서 1 장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놀라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본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완결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각 지방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분배된 결과이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며, 이 몸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온 땅에 표현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로마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은 종교나 교리나 형식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속이나 용서나 의롭게 됨에 관한 것만도 아니다. ...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들의 자격에 관한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기쁨과 갈망과 즐거움은 모두 그분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마 3:17, 17:5, 갈 1:15-16). ...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본 혹은 모형과 같은 형상을 이룬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고 있다.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은 원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8 장 29 절과 30 절은 대량 생산품인 많은 아들들을 밝혀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5, 7-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5

7/22 화요일

아침의 누림

시 2:6-12 (7-8)

6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시리라.

7 내가 여호와와 칙령을 선포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8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유업으로 주고 땅의 끝까지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

9 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깨뜨리리라.”

10 그러니 이제 현명해져라, 왕들이여, 경고를 받아들여라, 땅의 재판관들이여.

11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12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히 1:6

6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 편 7 절부터 9 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포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 장 33 절에서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시편 2 편 7 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끊어지신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9:26) 후에 부활하시어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롬 1:3-4, 8:29, 히 1:5-6). 동일한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이 그분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많은 형제들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요 20:17, 벰전 1:3, 롬 8:29, 히 2:10). (시 2:7 각주 1)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나는 시편 2 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바울은 ‘오늘’이라는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다(비교 행 13:33).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이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출생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7, 314-3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안에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롬 1:3).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선포한다(1:14).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사람의 씨가 되셨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을 본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렇게

인정되심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육체가 되시기 전에 그분은 오직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신성을 가지실 뿐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 안에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심지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롬 8:3). 이것은 그리스도께 육체의 죄악된 본성이 없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은 오직 죄의 육체의 모양만 가지셨다. 이 방면에서 그분은 광야에서 장대에 달려 높이 들려 올려진 놋뱀과 같으셨다(민 21:8-9). 놋 뱀에게는 뱀의 모습은 있었지만, 뱀의 독 있는 본성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의 본성이 부활에 의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은 끔찍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놀랍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을 위한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변형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는가? 시편 2 편 7 절을 인용한 사도행전 13 장 33 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분은 그날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가?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부활에 의해 태어나시는 것이 필요하셨다. 신성에 관한 한 그분은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인성에 관한 한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다.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높이 올려졌고 영광스러운 실질로 변형되었다. 이것은 부활에 의해 능력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은 또한 인정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인정되셨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3, 84-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2-53

7/2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히 2:10, 11-18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1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13 또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또 “보십시오,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15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18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그 출생에 의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첫 번째 출생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출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첫 번째 출생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두 번째 출생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한편으로 요한복음 3 장 16 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 다른 한편으로 로마서 8 장 29 절은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두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첫 번째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두 번째 방면에서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다. 로마서 8 장 29 절은 믿는 이들이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위트니스리 전집, 1980 년, 2 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4 장, 6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영원 과거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와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맏아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육체 되심 이전의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만을 소유하셨고 인성은 없으셨다. 그러나 육체 되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성을 입으셨다. 그분은 인생을 통과하시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부활 안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분의 신성에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 안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셨다. 또한 그분은 육체 되심을 통해 얻으신 인성을 소유하셨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께서 입으신 인성은 부활 안으로 이끌리어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도행전 13 장 33 절은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부활이 그분의 인성을 ‘아들화’하여 그 인성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출생으로서, 그분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이라면 그분께는 형제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로 얻으시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성을 소유하셔야 한다. ...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 인성을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신 것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듭난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벧전 1:3).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모두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이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진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그분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는 또한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도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하고 있다(벧후 1:4).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롬 8:29).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2 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4 장, 691-69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8 장

7/2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1:3-4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롬 8:3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눅 1:31-32, 35

31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32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히 1:5

5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육체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다윗의 씨이시다(롬 1:3). 여기에서 ‘육체’는 창조된 사람 곧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타락한 사람 곧 타락을 통해 육체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육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본성 안에 죄를 가져와, 창조된 사람을 타락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다. ...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모양과 모습은 있으나 죄의 본성은 없는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롬 8:3). ...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죄와 아무 상관도 없으셨다 (고후 5:21, 히 4:15, 요일 3: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셨을 때 죄의 육체의 모양만 있으셨을 뿐, 육체의 죄는 없으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5, 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대인들은 육체에 따른 주님의 신분이 다윗의 씨이신 것을 알아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셨음을 시인했다(마 1:1, 9:27, 12:23, 21:9, 15).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 가운데 큰 논쟁이 있었다(막 2:5-7, 요 6:41-42). ...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계시가 없었으므로 그분을 기껏해야 신언자 중 가장 위대한 분으로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 이시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유로 그분께 사형 선고를 내렸다(마 26:63-66, 27:43, 막 14:61-64).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다(요 10:30-33, 36).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부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후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육체에 의해 감추어졌다. 하지만 로마서 1 장 4 절에 따르면,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인성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나사로(요 11:41-44)나 다른 사람들의 부활 (눅 7:11-17, 8:49-54)과 달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평범하지 않고 매우 특별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달랐는데, 그것은 그분의 부활이 곧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즉시 그분께서 사람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감추어지셨기 때문이다. ... 이렇게 감추어진 신성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고 나타나야 했다.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기 전에도 이미 신성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요 1:18, 롬 8:3).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한 요소 곧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성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져야 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간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행 13:33, 히 1:5). 주님의 부활은 그 분께서 인정되신 것이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인성도 소유하고 계신다. 육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는데, 이것은 곧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소유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산자와 원형 혹은 모형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많은 아들들(롬 8:29-30)로 산출하신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나타날 것이며(롬 8:19, 21),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5, 12-1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4

7/25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1:3-4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벧전 3:18

18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엡 1:19-20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 즉 육체에 따른 본성과 거룩한 영에 따른 본성이 있으시다. 로마서 1 장 4 절의 ‘거룩한’은 하나님의 본질, 실질을 가리킨다. ... 육체 되심을 통하여 그분은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신성한 본성을 잃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의 비밀이셨다. 겉모양에 따르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많은 것은 비범했으며, 어떤 평범한 사람도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며 실재라고 말씀하셨다(14:6).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 8:12), “내가 생명의 떡이니”(6:35)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누구든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요 3:36). 어떤 철학자도 감히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시고 인간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의아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족을 알았지만, 어떻게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마 13:54-56). 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었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2, 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분께서 인정되시는 길, 곧 영광스럽게 되시는 최상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카네이션씨를 예로 들 수 있다. 카네이션씨가 흙 속에 묻혀 죽으면

결국 그것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써 ‘꽃 피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분께서 종결되었다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주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상 시작이며,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한 영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아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두 가지 본성, 곧 신성에 속한 본성과 인성에 속한 본성이 둘 다 있으시다.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 소유하신 인성은 타고난 인성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높이 올려진 인성이다. 심지어 그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인격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모형, 본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 둘 다를 가져야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2, 75-76 쪽)

인성 안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성한 능력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한 신성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임을 보아야 한다. 로마서 1 장 4 절에 있는 ‘능력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3 장 18 절과 일치한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인성 곧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그분의 영은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기 있게 되어, 신성을 그리스도의 인성 안으로 넣어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단지 인간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은 강하게 되어 신성을 그분의 인성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재는 그분의 영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295, 15-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5

7/26 토요일

아침의 누리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2:10-11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계 21:1-2, 5-7, 10-11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인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인성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영원 안에서 우리의 인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일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 장에 있는 타고난 몸과, 부활한 몸인 영적인 몸의 대조로 입증된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하나의 씨와 같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씨’는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2, 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떻게 우리가 신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신성을 갖는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인성을 입으셨으며, 그 후로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과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신성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두 본성, 곧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갖는다. 그 영으로 남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벧후 1:4).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당신께서 두 본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하시고 인간적이시며, 우리는 인간적이고 신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셨고, 우리는 당신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신성하시며 또한 인간적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이며 또한 신성합니다. 당신은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 더 이상 독생자이신 아들 한 분만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 즉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은 그러한 선포를 누리신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안에 있다. 언젠가 이 과정은 완성될 것이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다.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에는 많은 핵심적인 어구들이 있다. 1 장 3 절에는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이라는 어구가 있고, 4 절에는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이라는 어구가 있다. 8 장 4 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1 장 3 절과 4 절에 있는 핵심적인 어구들을 바울이 이 책의 뒤에서 다시 사용한 한 예이다.

로마서 1 장 4 절에서 특별히 놀라운 단어는 ‘부활’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6 장 5 절에서 바울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의해 인정되었고, 우리는 이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실상 우리는 부활에 의해 인정된다.

각 생명마다 고유의 모양이 있다. 예를 들어, 개가 한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닭이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명이 성숙하게 되면 그 생명의 완전한 모양이 있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모양, 온전한 외형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과 변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명의 온전한 외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카네이션, 닭, 개는 모두 각 생명의 본질에 따라 상이한 생명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카네이션은 카네이션 생명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카네이션 모양을 갖는다. 카네이션의 본질은 카네이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 카네이션 모양으로 발전한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외형을 갖추게 한다. 생명의 능력의 외형을 갖추게 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이 될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2, 76-78 쪽, 메시지 54, 10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2

7/27 주일

아침의 누림

롬 1:16-17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롬 8:18-23, 28-30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21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2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